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조인식



8월 7일 오후 4시 정릉 의료원 본부에서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조인식을 진행했다. 의료원은 사측 대표위원인 윤을식 의무부총장을 비롯해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및 교섭단들이 참가했으며 노동조합은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서울지역본부 최희선 본부장, 송은옥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교섭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올해 파업을 진행했지만 이후로 더 발전하는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현장의 인력 문제나 고충에 대해 노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대의료원 조합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고 보건의료노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선 본부장은 “고대의료원지부가 21년에도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듯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과연 고대의료원지부가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소통했으면 한다.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가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것이었다. 인력 충원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욱 소통하고 신뢰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은옥 수석부지장은 “20년 넘게 간호사로 있으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이 올해 교섭과정에서도 같았다고 느꼈다. 현장의 문제가 당장 해결할 수 없었던 게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파업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으니까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간호사행복추진회에 노동조합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노사가 같이 상시적으로 소통한다면 교섭이나 노사협의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인식은 노사 대표위원 인사, 협약서 조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조인식에는 고용노동부 북부지청 공석원 지청장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함께했다. 공 지청장은 “파업이 반복되다 보면 관행이 된다. 파업 이전에 노사가 진정한 안이 나올 수 있는 교섭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매년 반복적 파업을 하는 곳이 있는 반면, 아닌 곳도 있다. 파업 이전 해결할 수 있는 관행이 되었으면 한다. 노사가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 제시와 타결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올해 교섭을 하면서 서운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작년처럼 좋은 관계 개선을 해 나가야 내년의 교섭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갑질을 일삼고 현장 갈등만 키우는 태가BM



안암병원 신관입구에서는 미화용역업체인 태가비엠(주) 소속 보건의료노조 고대안암병원 새봄지부 조합원들이 2개월이 넘게 매일 아침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자행하는 현장소장 교체하라!”, “우리도 태가비엠 직원이다.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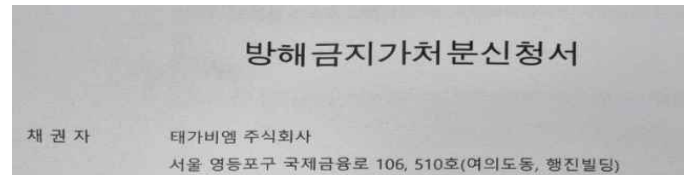
태가비엠의 현장소장 및 관리자들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한 집중탄압!

태가비엠(주)은 2016년 연세세브란스 병원 소속 직원들과 함께 복수노조를 만들어 노조 와해 공작을 자행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한 전력이 있는 업체로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어 1심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고대안암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다. 태가비엠(주)은 2015년 복수노조(한국노총)를 만들고 노조 탄압을 하여 2017년에 교섭권이 한국노총으로 넘어갔으며 2016년 당시 50여명이던 민주노총 조합원이 2018년에는 20여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2020년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보건의료노조로 조직이 전환 후 현장관리자의 갑질과 괴롭힘, 부당한 처우를 견디기 어려워 1월에 10 여 명, 3월에 20여명이 보건의료노조로 가입하여 다수 노조가 되었다. 그러자 보건의료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현장소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은 한국노총에서 보건의료노조로 넘어온 조합원들만 집중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 ▲ 대기시간 중 잠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을 사진 찍은 후 경위서 제출 요구.
- ▲ 힘든 부서만 골라서 배치.
- ▲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친한 신규직원에게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계약만료(해고).
- ▲ 갈등을 유발시켜 갖은 명목으로 징계.

그 결과, 1월부터 현재까지 10명이 넘는 조합원이 괴롭힘에 못 견디고 퇴사하였다.

4월 19일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고대 안암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현장관리자의 노조 탄압 및 괴롭힘에 대해 현장 증언대회를 개최하여 태가비엠(주)에 관련자 징계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여태까지 사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근무시간 외 진행되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무단촬영하며 버젓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및 우리지부의 간부들이 무단촬영을 막아나서자 태가비엠은 서울지방법원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고대의료원지부 노재욱 전 지부장, 이장구 선임노동안전부장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태가비엠의 노동탄압을 지역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편, 안암병원 새봄지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연대의 손을 뻗고 있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성북구 시민사회연석회의,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등이 포함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해 새봄지부의 투쟁에 연대하고 있으며 우리지부 역시 공동대위에 참가하고 있다.

의료원과 고대안암병원은 더 이상 방관이 아닌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사태는 청소노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대병원내에서 일어나는 노조 탄압이다. 우리 지부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의 권리를 유린하는 태가비엠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원청은 병원 이미지 훼손방지 및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인증평가, JCI 등 병원 평가시에는 한가죽이라 말하면서 하청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모순이다. 병원 이미지 실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 직원들의 불신은 쌓여만 갈뿐이다.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